

하나님의 주권 찾기 _ 다니엘서 4강

1. 다니엘 7장 개요

다니엘서 7장은 다니엘서 전체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다니엘서는 두 가지 언어를 사용하였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사용하는 히브리어와 당시 공용어인 아람어였습니다. 다니엘서는 이렇게 두 가지 언어로 되어 있는데 같은 단어라도 각 언어마다 그 쓰임이 달라 한 절 한 절 그 의미를 정확히 집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건을 중심으로 기술된 6장과는 달리 7장부터는 묵시적 내용이 많기 때문에 더욱 이해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묵시'가 뭐라고 하였죠? '덮개를 벗기다', '감추인 것을 드러내 보이다' '비밀을 폭로하다'는 뜻으로, '감춰진 뜻을 성령을 통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내용을 요한계시록과 연결해 해석하다 보니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견해가 옳고 그른가를 따지기 보다는 다니엘서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한 관점으로 다니엘서 후반부를 바라보면 좀 더 쉽게 말씀의 매듭을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 상징과 의미 – 옆면촬영 시작

7장을 살펴보기 전 먼저 성경에 나오는 여러 단어들이 어떤 상징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바다

이사야 17:12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 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많은 백성들의 움직임을 파도가 치는 것처럼 묘사합니다. 바다 속에서 짐승들이 나오게 되는데 많은 물인 바다는 백성과 많은 무리를 의미합니다.

- 바람

스가랴 7:14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에 보면 바람을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나라로 흩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람은 전쟁과 싸움과 재난을 의미합니다. 전쟁으로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음을 보여줍니다.

- 짐승

다니엘 7:23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커다란 짐승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짐승은 이 세상에 등장하게 될 나라, 혹은 왕을 의미합니다.

- 뿔

다니엘 7:24

그 열 뿐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세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뿔은 왕과 왕국, 왕권과 같은 힘과 권력을 의미합니다.

- 날개

예레미야 4:13

보라 그가 구름 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짐승들 가운데 날개를 단 짐승이 나옵니다. 날개는 매우 빠르고 신속함을 의미합니다.

- 하루(예언상 기록된 하루)

예언상에 기록된 하루는 실제 1년이라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일 원칙이라 합니다.

하루를 일년으로 계산하는 것이죠

에스겔 4:6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사십 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일 년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동안 광야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하루를 일년으로 계산에서 죄값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니엘에서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니엘 11:13

북방 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때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성경이 기록된 때는 1년이라는 시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몇 가지 상징의 키워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다니엘 7장과 8장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리라 생각됩니다. **옆면촬영 끝**

3. 다니엘 7장 내용

역사적으로 볼 때 7장의 계시는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보다 약 10여년 전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 7장의 계시는 다니엘 4장과 5장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는 다니엘이 꿈속에서 본 환상이 소개됩니다.

환상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옵니다.

바다는 많은 백성이 있는 인간세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네 마리의 큰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모양이 서로 다릅니다.

역사의 주 무대였던 유럽을 중심으로 큰 바람이 네 번 불더니 네 짐승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네 번의 큰 전쟁이 있다가 네 왕국이 일어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다로 표현된 인간 세상에 이해관계가 뒤엉켜 한 바탕 큰 바람이 불고나면 그 결과 역사의 새로운 주인공들이 나타나고 또 사라지는 흥망성쇠를 생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짐승은 무엇일까요?

4. 첫번째 짐승-사자

첫 번째 짐승을 다니엘 7장 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7:4

4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니엘이 보았던 첫 번째 짐승은 사자로 표현되었습니다. 보통사자가 아니라 독수리의 날개를 가졌습니다. 사자로 표현된 짐승은 네 왕 제국 가운데 어느 제국에 해당되는 것일까요? 바로 다니엘이 살고 있었던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은 실제 역사 속에서도 사자로 표상되었습니다.

옆면촬영

'이슈타르의 문'이라는 성문이 있는데요 이 성문은 고대 도시 바벨론(지금의 이라크 지역)의 간선도로 위에 있습니다. 높이는 12m가 넘고 대문의 누각을 관통하여 돌과 벽돌로 포장된 행차의 길이라는 대로가 뻗어 있었는데 이 길은 약 800m정도 됩니다.

이 대로의 양편에 보면, 바벨론 사람들이 믿는 마르둑이라는 신들이 도시를 보호해준다는 의미로서 사자나 황소 용들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슈타르의 문을 지나면 작은 신전이 나오는데 매년 마다 마르둑이 여기를 방문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바벨론은 동물의 왕 사자로 묘사될 만큼 문화와 규모가 대단했습니다.

옆면촬영끝

그런데 다니엘은 첫 번째 짐승에 대해 이렇게 예언합니다.

동물의 왕인 사자와 새들의 왕인 독수리로 상징되었던 바벨론, 그러나 후에는 날개가 뽑혔고 사람의 마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의 세력이 약하고 사자의 용맹함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처럼 연약하게 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 이후에 바벨론 보좌 위에는 하나같이 마음이 약한 통치자들이 계승하게 됩니다.

5. 두 번째 짐승 - 곰

두 번째 짐승은 다니엘 7장 5절에 등장합니다.

다니엘 7:5

다른 짐승 곰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세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곰으로 상징된 메데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사자의 위엄은 갖추지 못했지만 끈질기고 물러설 줄 모르는 용맹과 잔인함이 특징인 곰은, 매대와 페르시아를 상징하기에 적절합니다. 특별히 한 번 재정하면 영원히 변경할 수 없는 페르시아의 미련한 법이 있었는데요. 이 미련한 성질은 곰의 특성에 잘 부합됩니다.

이 곰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몸 한쪽을 들었고라는 표현이 있는데 완벽한 균형을 이루지 못한 것이죠. 다니엘 2장에 나왔던 두 번째 나라는 은으로 두팔을 가진 가슴으로 묘사되었습니다. 두팔을 가졌다는 것은 메데와 페르시아의 연합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몸 한편을 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두 나라가 연합을 이루긴 했지만 그 세력의 균형이 잡히지 않았음을 알려줍니다.

메대와 페르시아는 다 함께 인도와 유럽계의 동일한 인종인데요, 이란 고원을 중심으로 공존해 온 형제 지간의 나라였습니다. 초기에는 메대가 주도권을 행사했으나, 고레스가 등장하면서 페르시아가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옆면촬영

헤로도토스가 기록한 역사라는 책에 보면, 고레스 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고레스가 역사 속에서 등장하지 못할 사건이 있었습니다. 메대사람들이 왕이며 페르시아인들의 대 군주였던 아스티아게스에게 딸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만다네라 하였습니다. 만다네를 메대인과 결혼시키지 않고 페르시아인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바로 고레스(키루스)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아스티아게스가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자기 딸 만다네가 소변이 마려워서 소변을 놓는데 이로 인해 흥수가 나서 온 나라가 물에 잠기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꿈을 꿨는데 만다네의 자궁에서 한 나무 뿌리가 자라는데 그 뿌리가 온 나라를 뒤덮는 꿈을 꾸게 됩니다. 아스티아게스는 매우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꿈의 해석을 물어보니 다들 '왕의 나라가 왕의 후계자에게 넘어가지 않고 공주 만다네가 낳은 아들이 이 나라를 이어 받게 되는 꿈'이라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스티아게스는 늘 외손자가 왕을 물려받는 것을 못마땅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린 고레스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의 수석 고문관이었던 하르파고스에게 명령합니다. 하르파고스가 어린 고레스를 데려다가 죽이려고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순진하게 바라보는 아기 고레스를 차마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때 깊은 산속에서 어디선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르파고스가 이 웃음소리를 따라 찾아가 보았더니 한 목자의 집이 있었습니다. 가보니 목자의 아내가 아기를 낳다가 아기가 죽게 된 것입니다. 하르파고스는 그 목자에게 이 아기가 어디서 왔는지 묻지말고 잘 키워 달라 요청합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고레스는 왕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 비범하고 놀랐습니다. 시골동네에서 고레스는 모든 사람에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훌륭했던지 그의 소문이 왕궁까지 전해졌습니다. 결국은 아스티아게스가 고레스를 왕궁으로 불러오게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요? 자기가 어릴적 죽이라 명령했던 고레스입니다. 그래서 하르파고스를 불러 어떻게 된 일인지 묻습니다. 하르파고스가 자초지종을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고레스를 보니 매우 훌륭하게 자란 것이에요. 아스티아게스는 자신의 꿈에 게이치 않고 주변에 권유를 받아들여서 고레스를 왕궁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그 꿈대로 되었습니다.

그후 고레스는 아스티아게스에게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스티아게스는 자신의 군대로 고레스의 반란을 진압하려 했지만 그의 군대가 그를 배신하고 고레스에게 항복을 합니다. 결국은 고레스가 메대 페르시아의 모든 주도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레스는 메대 페르시아 연합군을 이끌고 바벨론을 무찌르는 선봉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고레스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나의 목자 고레스가 내 백성을 회복하고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을 내릴 것이라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마터면 고레스가 어릴 적에 그만 목숨을 잃고 역사 속에 물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리시고 구속의 사업을 이루어나가게 되었습니다.

옆면촬영 끝

다시 다니엘로 돌아와 5절에

곰 입의 잇사이에 세 갈빗대가 물려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메대와 페르시아에 의해서 정복될 세 나라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BC 547년 리디아 / BC 539년 바벨론 / BC 525년 이집트
다니엘 꿈의 이상처럼 메대 페르시아는 세 나라 큰 나라를 무찔렀습니다. 명실공이 고대 근동을 제패하는 대제국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아울러 이상 가운데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는 표현은 서방원정에서 나타난 페르시아야 야욕과 잔인성을 묘사하며 바벨론 보다 더 많은 살육의 전쟁을 치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언했고,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6. 세 번째 짐승 - 표범

세 번째 짐승은 다니엘 7:6절에 나타납니다.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표범은 체구는 작지만 빠르고 용맹스러운 맹수입니다. 게다가 신속한 행동을 의미하는 날개를 달았음은 한층 빠르기를 강조합니다.

다니엘서 2장을 통해 배운 것처럼 메대 페르시아 다음 나라는 어디인가요? 바로 헬라제국입니다. 헬라를 큰 제국으로 만든 왕이 누구였죠? 알렉산더 대왕이었습니다. 사실 알렉산더는 그리스의 정통 민족은 아닙니다.

옆면 촬영

그리스 지역에서는 고대부터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서로 권력을 주고 싸웠습니다. 강력한 육군을 가진 스파르타와 강력한 해군을 가진 아테네가 서로 경쟁하게 됩니다. 이것이 유명한 펠로폰네소스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스파르타가 승리하게 되고 아테네가 패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그리스의 주도권이 아테네에서 스파르타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후에도 스파르타는 계속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와중에 혜성처럼 등장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인들로 야만인 취급을 받았던 마게도냐 사람입니다. 원래 마게도냐는 페르시아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냐의 기초를 단단히 다진이는 필립 2세라는 왕이었습니다. 바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입니다. 필립 2세는 왕이 되기 전에 그리스 세계에서 가장 강한 도시였던 테베의 인질로 잡혀 있었습니다. 이때 아버지 필립에 이어 20세에 왕위에 오른 알렉산더는 22세때에 기원전 334년 봄에 긴 창을 사용하는 돌격부대와 기마병으로 구성된 3만 5천명의 소수 군대와 70달란트 밖에 안되는 군자금과 일개월분의 군량만 가지고 332년 팔레스틴을 정복합니다. 이어 이집트 시리아를 지나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강을 건너 페르시아를 정복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10년 안에 20대의 젊은이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마치 표범과 같은 용맹과 기민성을 가지고 동서남북으로 새처럼 날 듯 정복하였습니다.

옆면 촬영 끝

다니엘 7장 6절에 보면 머리 넷이 있다 표현합니다.

머리는 지도자 곧 왕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리스 제국이 네 왕에 의해 나뉘어 질 것을 상징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죽기전에 힘센자가 이 나라를 차지한다는

이렇게 다니엘서 7장에서 보았던 그 꿈의 내용대로 정확하게 성취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헬라제국이 네 명의 장군에 의해서 분할 통치되는 표범이 네 개의 머리를 갖게 되는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 집니다.

7. 네번째 짐승(무서운 괴물)과 뿔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은 다니엘 7장 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니엘 7:7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더라

다니엘서 2장에서 공부한 것처럼 네 번째로 등장하는 제국은 철의 제국 로마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을 이어 세계를 통일한 것은 라틴민족 로마였습니다. 기원전 1세기에 이미 유럽전역과 아프리카를 정복했구요. 철이 강한 금속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강력한 군사조직으로 많은 나라를 쳐서 부서뜨리게 됩니다. 다니엘 2장의 철의 나라와 일맥상통합니다.

에드워드 기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제국은 온 세계를 가득 채웠으며, 이 제국이 어느 개인의 손에 넘어갔을 때 세계는 그의 원수들에게는 하나의 금고나 두려운 감옥이 되고 말았다. 저항하는 것은 파멸이었으며, 도망친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바로 무서운 괴물이 매우 난폭하게 그의 정복한 나라를 다스리고 짓밟을 것이라는 예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로마는 매우 무서운 악행들을 저지릅니다. 로마는 못과 망치를 이용해 십자가를 만듭니다. 예수님도 그의 제자들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200년이상 핍박을 통해 무수한 그리스도인들이 재산과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뿔

다니엘 7:7-8

7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더라

8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의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7절의 열뿔은 다니엘 7:24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열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다니엘 2장에서는 철의 나라다음에 열 개의 발가락시대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7장에서는 무서운 동물에게서 열 개의 뿔이 돌아난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열 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에 일어날 열 왕을 말합니다. 로마가 약화될 무렵 게르만 민족이 침입하고 그 영토를 각각 차지하여 오늘날 유럽의 분열된 나라들의 기초를 놓게 됩니다.

8. 영원한 나라

다니엘의 꿈을 종합해 보자면,

첫 번째 짐승은 사자 같고, 두 번째는 곰, 세 번째는 표범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은 생김새가 다른 세 짐승처럼 무섭고 강해보이기는 한데 그 형태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양도 다릅니다. 게다가 쇠로 된 큰 이로 다른 짐승을 먹고 부수기까지 합니다. 다니엘은 꿈속에서 이 환상을 본 뒤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알지 못해 마음속으로 번민합니다. 그러다 그의 곁에 있는 한 사람에게 나아가 물었습니다. 그 한 사람은 천사 가브리엘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때때로 천사가 등장하는데 그중 가브리엘은 언제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맡은 천사입니다.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환상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해석해 줍니다.

다니엘 7:17-18

- 17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18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여기서 왕은 국가를 상징적으로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네 짐승은 곧 네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죠. 바벨론, 메대/페르시아, 헬라, 로마죠. 그런데 그 나라들이 모두 지나가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얻은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세 번이나 영원함을 반복해서 강조할 정도로 영원히 지속되는 나라입니다.

이 영원한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며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여전히 해당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압제 가운데 모든 소망의 끈이 끊긴 상태입니다.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을 수 있을지 점점 희망이 사라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 주시며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 번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나라와 그 권력이 아무리 오래 지속된다 한들 반드시 끝나는 날이 온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분의 백성이 힘들고 고통스러워할 때, 딱 한가지를 부탁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주신 언약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붙들고 성실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라는 것이죠.

9. 또 다른 환상

다니엘은 또 다른 환상을 보게 됩니다. .

다니엘 8:3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 가에 두 뿔 가진 속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라

다니엘은 환상 중에 두 뿔 가진 속양 한 마리가 강가에 서 있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런데 두 뿔의 길이가 다릅니다. 긴 뿔이 나중에 난 것으로 가브리엘 천사는 이 장면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다니엘 8:20

20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속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두 뿔을 가진 숫양은 메대 페르시아 제국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두 뿔의 길이가 어떤가요? 길이가 다릅니다. 왜 한쪽 뿔이 더 긴 것일까요? 메대 페르시아 제국의 역사를 보면 메대 제국보다 훗날 세워진 페르시아 제국이 더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결국 페르시아 제국은 메대 제국을 합병하고 메대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한 나라를 이룹니다. 이것을 '나중에 난 뿔이 다른 한 뿔보다 더 길다'라고 묘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숫양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아무도 제어할 상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이어 현저한 뿔이 있는 숫염소가 등장합니다.

다니엘 8:5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숫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현저하다는 뜻은 '뚜렷이 드러나 있다'라는 말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이 숫염소가 헬라 제국을 상징한다고 해석합니다.

다니엘 8:21

털이 많은 숫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말씀처럼 메대 페르시아 제국은 헬라 제국에 의해 무너집니다. 헬라 제국을 상징하는 숫염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 8:5-7

5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숫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6 그것이 두 뿔 가진 숫양 곧 내가 본 바 강 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7 내가 본즉 그것이 숫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숫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숫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숫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숫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아무도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지닌 메대 페르시아 제국이 헬라 제국에게 제대로 저항 한 번 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메대 페르시아 제국을 연약한 동물의 상징인 양으로 비유한 이유입니다.

그럼 숫염소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현저한 뿔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보통 성경에서 '뿔'은 권력을 상징하는데 여기서 '현저한 뿔'은 헬라 제국의 황제였던 알렉산더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뿔이 꺾이고 새롭게 네 개의 뿔이 등장합니다.

다니엘 8:8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서양 고대사를 보면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가 죽고 난 뒤 네 나라로 분열 됩니다. 이 과정에서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 시절의 힘과 명성을 잊고 쇠락해 갔습니다.

10 예루살렘의 멸망과 회복

옆면 촬영

이후 시리아와 이란 지역을 차지한 셀레우코스 장군 이후 안티오쿠스 4세가 등장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킨다는 사실을 이용해 안식일에 맞춰 이스라엘 민족의 자존심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침공합니다. 그리고 그 뒤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이스라엘 민족이 끔직이도 싫어하던 돼지를 제물로 바칩니다. 이 이야기가 다니엘서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보세요.

다니엘 8:9-11

9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10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의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 것들을 짓밟고

11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재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 버렸고 그의 성소를 훌었으며

여기서 9절에 영화로운 땅은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10절에 하늘 군대는 이스라엘 민족을 뜻합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그 영화로운 땅에 있는 성전을 허물고 제우스 신상을 가져다 놓은 채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소유하고 낭독하는 것을 금지하죠.

그러나 안티오쿠스 4세도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옆면 촬영 끝

다니엘 8:14

그가 내게 이르되 이천삼백 주야까지니 그 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이천삼백 주야가 지난 뒤 안티오쿠스 4세는 죽음을 맞고,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을 되찾게 됩니다. 여기서 이천삼백주야는 숫자 그대로 2,300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처럼 24시간을 셈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제사를 하루로 칩니다. 그런데 하루에 두 번 제사를 드리니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의 개념이 그들에게는 이틀이 되는 셈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2,300일을 둘로 나눈 1,150일이 바로 이 말씀에서 의미하는 2,300주입니다. 1,150일은 3년하고도 50일이 더 되는데요.. 역사 속에서도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을 침공한 뒤,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을 되찾은 기간이 3년 여가 걸렸다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8:27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다니엘은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습니다. 여기서 놀랐다는 것은 인생의 한 획이 그어질 정도로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는 이 환상을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자나 국가는 반드시 심판 당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강성한 국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끝이 멸망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잊지 말고 간직하라고 당부하십니다. 인간의 시점으로 보면 다니엘이 본 환상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점으로는 이미 완성된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19시대와 같이 아무리 칠혹같은 어둠 속에 던져졌다 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어야 합니다. 약속을 붙드는 인생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붙든 그 약속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완성시키기 때문이죠.